

커뮤니티 활동의 주민참여에 대한 광주시민 의식 조사

Citizens' Perception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of Gwangju City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주거환경학과
부 교수 김 영 주*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Youngjoo

<Abstract>

Citizen participation or resident participation is perceived as an effective way to correspond to the diverse urban problems, especially in the area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community activities. As the leading city of the Honam region and a core middle city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western region, Gwangju city is planning and under-developing new Housing Complexes and Urban Renewal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Gwangju citizens on resid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to suggest diverse strategies for improving quality of citizen's life and making better living environment. For the research purpose, 1,38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Gwangju citizens who live in 5 autonomous districts -Dong-gu, Seo-gu, Nam-gu, Buk-gu, and Gwangsan-gu- and 601 were used in data analysis. Although citizens in Dong-gu showed the lowest settlement consciousness, they required the highest level of need for resident self-help activities. Contrastingly, Seo-gu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the lowest need for resident self-help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high quality community facility should be provided to promot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consciousness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and self-help activity must be improved. And also, diverse strategi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resident education programs and search for regional resources should be covered in further research.

▲주요어(Key Words) : 주민참여(resident participation), 시민의식(citizen's perception), 커뮤니티활동(community activity), 광주시(Gwangju C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도시는 가치관의 혼란, 실업증가와 계층간 소득 격차의 심화, 저출산·고령화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도시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환경 분야의 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 시책 이외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이재준, 2005). 서양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여건도 취약하여 주민참여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소순열, 2007). 지역 문제의 해결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 주저자·교신저자 : 김영주 (E-mail : youngkim79@hotmail.com)

는 우선 지역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의 역량은 개인적 성향, 참여의 경험, 맺고 있는 사회관계, 참여하는 조직의 특성,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 내 주민의 구성 및 의식 등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마상열, 2007).

광주광역시에는 호남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전남지역 전체와 전북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을 포함한 넓은 지역의 중심도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규모와 중요성을 갖는 타 도시와 달리 주택과 관련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주시 전체의 주택재고량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는 199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90년대까지 주된 주택유형이던 단독주택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광주시의 주택재고(409,882호) 중 아파트가 72.8%, 단독주택 23.8%, 연립주택 1.3%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층고밀 아파트 중심의 신주거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계획이다(광주발전연구원 내부자료). 그러나 이러한 신흥주거단지나 아파트의 상당수가 지역 특성 및 수요계층에 대한 적절한 사전분석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미분양사태를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도심권에서는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거계층 분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 결여 등 각종 사회문제가 갈수록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각 지역별로 특히 주거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보다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주민역량의 강화, 민·관 협력 등을 통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유도하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의 5개 구별로 전반적인 지역 환경의 특성과 문제점 및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의 주택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정에 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커뮤니티의 이미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광주광역시의 일반적 현황

광주시는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어 국내 제5위를 차지하는 호남지방(湖南地方) 최대의 도시이다. 2009년 9월 현재 행정조직은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구에 9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광주시의 지역특성을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생활여건 등을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적 지표

2008년 현재 광주광역시 전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01.5%이며(광주광역시, 2009), 자가점유율은 59.9%이다(국토해양부, 2009). 광주시 5개 구별로 주거환경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구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다핵도시 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에 부도심권이 형성되면서 상업, 업무지역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인구증감률이 -4.3%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동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248명으로,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13.2%)을 보이고 있다. 동구의 주택수는 35,224채(2008년 12월 기준)로 79.0%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유형은 다른 4개 구와 달리 단독주택이 59.8%로 가장 많고, 아파트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는 광산구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도시개발이 가속화된 지역으로 대단위택지개발사업지구인 금호지구, 풍암지구, 상무지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적 개발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인구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인구증감률이 -0.7%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수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는 104,927채(2008년 12월 기준)로 95.0%의 주택보급율을 보인다. 주택유형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아파트 67.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그 다음은 단독주택(30.5%)의 순으로 나타난다.

남구의 세대수는 총 77,480세대(2008년 12월 기준)로 214,09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인구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74,642채로 111.6%의 주택보급율을 보여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높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단독주택(41.6%)이 차지하고 있다.

북구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 171,341세대, 477,513명이 거주하고 있어 광주시 5개 구 중 가장 많은 33.3%의 인구가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증감률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1.8%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수는 163,742채(2008년 12월 기준)이며, 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주택보급율(109.9%)을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의 비율이 65.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31.0%)의 순이다.

광산구는 총 109,390세대(2008년 12월 기준), 325,8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108,021채로 99.2%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광산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75.0%)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단독주택(22.6%), 연립주택(2.3%), 다세대주택(2.0%) 순으로 나타났다.

2) 질적 지표

광주광역시 1990년대에 주택건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52.0%), 2000년대 들어서는 17.7%로 신규주택의 건설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2005년을 기준으로 건축경과년수가 25년을 초과한 주택은 37,896호(10.4%)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990~1999년 사이에 건축된 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대부분은 아파트이다. 단독주택은 1980~1984년, 연립주택은 1980~1989년, 다세대주택은 2000~2005년에 건설된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건축경과년수가 25년 이상된 주택은 북구가 8,970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동구(8,469호), 남구(8,157호)의 순이다. 그러나 구별 인구수 대비 노후주택 비율은 동구가 30.8%로 월등히 높아 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가구당 평균인원수는 3명, 가구당 평균사용방수는 3.7개로 조사되어 최저주거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시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51가구/호, 남구 1.23가구/호, 북구 1.22가구/호로 동구의 주거밀도가 가장 높다. 한편 광주시 전체의 1인당 평균사용방수는 1.3개,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6.7평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광역시 평균인 8.26평보다 작은 규모이다.

3) 생활여건

광주광역시의 5개 구 중, 동구는 녹지지역의 비율이 81%로 상당히 높으며, 주거지역 15%, 상업지역의 면적이 4%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는 녹지지역이 약 60%, 주거지역이 30.5%를 차지하고 있다. 남구 역시 동구와 비슷하게 녹지지역의 비율이 80%를 차지하며, 주거지역 17%, 상업지역 4%, 공업지역 1.8%, 비도시지역 2% 등으로 나타난다. 북구는 녹지지역의 비율이 93.7%로 다른 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주거지역(21%), 상업지역, 공업지역 순으로 나타난다.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의 44.5%에 해당되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56.7%(126.5km²)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각 구별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동구가 13.9개로 가장 많은 반면, 북구가 2.2개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편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광산구가 10.6개로 5개 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는 광주시 평균 12.5개인데, 이중 광산구가 15.4개로 가장 많은 반면, 인구고령화가 가장 높은 동구가 10.4개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는 동구가 3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4개 지역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은 동구가 6.9개(인구십만명당)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구와 광산구는 각각 1.6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로 살펴본 의료기관은 동구가 28.7개로 가장 많은 반면 서구가 8.2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의 개념과 구성요소

흔히 주민운동, 지역운동, 지역사회 운동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주민참여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말한다(김행중·오정석, 2008). 주민참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주민조직의 건설,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연결과 활용, 주민들의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충족시키는 필요조건들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서종균, 2001; Creighton, 2005).

2. 주민참여 유형과 사업

이호 등(2001)은 주민참여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특정한 외부의 자극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주민조직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이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다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동원함으로써 강력한 대중적 힘을 결집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을 동원했던 외부의 자극이 약화된 이후에는 조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부단히 모색해야 한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유형은 일상적인 주민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조직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공부방이나 놀이방 등 주민들의 문화적·사회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큰 부담감 없이 주민들을 조직의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동적인 입장으로, 지역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이념과 가치관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모임을 갖는 유형이다.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조직이 유지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반면 단점은 조직을 형성하고 난 이후 행동으로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류중석

등, 2008).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는 지역주도, 주민주도, 지역의 자율기획,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살기 좋은 지역 유형으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의 9개를 개발한 바 있다(김선기·이소영, 2007). 사업의 유형이 무엇이든간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개혁과 공동체 기능의 회복, 주민참여의 극대화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오수길 등, 2007). 이영아 등(2008)은 주민참여형 도시정비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의 주체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사업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1은 '관 주도형'으로 외부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가, 지방정부, 주민대표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들이 주요 참여자가 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시작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진영환 등, 2007). 유형2는 시민(주민)단체 주도형으로 주로 임대아파트지역 주민조직화를 목적으로 공동모금회가 발주한 한시적 사업(2002~2005년)인 '지역사회발전센터사업'이 이에 해당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유형3은 주민 주도형 또는 자발적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가꾸고 정비하는 경우이다(이영아 등, 2008).

3. 주민참여 활동 및 조직 구성시 유의사항

특정 지역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다. 즉 주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지역의 주된 주택유형이 무엇인지, 지역규모상 대도시 지역인지,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소도시 지역인지, 저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지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같은 아파트 지역이라도 단지규모와 주택 평수에 따라 주민들의 연령대와 직업분포,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5). 예를 들어 세입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거지의 경우 주민들의 이동성이 높아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단기적인 사업들의 운영과 실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구 등, 2007).

4. 주민참여활동의 단계와 문제점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민참여 활동은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구성된다. 마을(지역)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회의 참석, 견학, 교육, 정보 제공 등의 단순한

주민 참여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시행단계에는 청소 등의 환경미화와 마을가꾸기, 주택의 지붕, 담장개량 등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주민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은규 등, 2006).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이 곧 주민들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을 계획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송미령·성주인, 2004).

주민참여의 문제점 중 첫째는 행정적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과 같은 주민 자질의 한계이다. 또한 주민의 이익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권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잘못된 행정정책을 집행할 소지도 있다(소순열·유찬주, 2007). 다음은 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로, 주민참여 활성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드는 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은 주민의 비전문성, 지원체계 미비 등 여러 요건으로 인해 오히려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민 대표성의 한계로서, 주민참여 사업에서 대부분의 주민측 주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표하는 '주민엘리트'인 경우가 많다. 그밖에 행정력의 낭비도 문제인데,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드는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이영아 등, 2008).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범위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으로 지역문제 해결과정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연구내용에 맞게 1차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0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청에 근무하는 주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주거학 전문가를 통해 설문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한 후 본조사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광주광역시의 5개구 산하 92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 3월

31일~4월 15일까지 우편조사방법을 통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에 협조공문과 함께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2009년 11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민등록 세대수 총 523,242 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확률 0.3%(1,570 가구)로 정하였다. 표본추출은 국토해양부의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사용한 표본 추출방법에 의거(조사구별로 15가구 내외의 표본가구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속하는 총 92개동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15부씩 총 1,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601개의 설문지를 회수(회수율 43.5%)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일반적 특성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가족구성, 주거특성(거주지역,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거주기간)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계획 및 이유,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의식에 관한 부분으로 지역주민의 시민의식, 지역 내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견해, 동네에 대한 관심도, 주민자치활동(주민자치활동 인지도,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정도와 참여도,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주민자치활동 필요도, 주민자치활동 필요이유 및 참여/비참여 이유, 향후 주민자치활동 참여 의사, 동네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내용,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5.0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가족특성, 주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주민의 동네관심도 척도에 대해서는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교차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구별 일반적 특성, 지역에 대한 의식,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조사 결과

1. 전체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 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특히 30대가 35.1%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초급대학 졸업 이상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공무원이 44.2%였고 나머지 55.8%는 다양한 직종을 가진 일반 시민이었다. 응답자의 50.3%가 101~3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가 6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 12.3%, 3세대 가족 9.4%, 혼자사는 단독가구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와 월세를 합한 차가가구는 35.7%였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독·다가구(24.9%), 연립·다세대(7.0%)의 순이었다. 거주지역 분포에서는 동구 9.6%, 서구 22.5%, 남구 17.8%, 북구 33.5%, 광산구 16.8%로 나타나 각 구별 인구구성 비율과 유사한 분포로 표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 5개 구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별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서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표집되었다(<표 1> 참조). 구별 연령 분포에서 동구는 40대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북구, 광산구는 30대가 각각 39.4%, 37.4%, 3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남구의 경우는 29세 이하 집단이 34.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구별 응답자의 학력 분포에서는 5개구 모두 초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 분포에서는 5개구 모두 일반시민이 공무원보다 많이 표집되었다. 구별 조사대상자의 월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5개구 모두 101~200만원의 월소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구는 100만원 이하(17.5%)와 201~300만원(22.8%), 서구는 301~400만원(22.5%), 남구(22.3%), 북구(24.0%), 광산구(24.5%)는 201~300만원대 소득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 경우 다른 4개 구보다 100만원 이하의 월소득 집단 비율(17.5%)이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5개 구 모두 '부모+자녀'의 2세대 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서구, 남구, 광산구는 '부부'와 '3세대 가족'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 동구는 '혼자'사는 가족형태(17.5%)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구성 면에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은 타 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나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별 조사대상자의 주택소유형태에서는 5개구 모두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개구 모두 전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전세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성별	남자	37(64.9)	57(43.2)	65(61.9)	83(42.3)	52(53.1)	294(50.0)	18.436***
	여자	20(35.1)	75(56.8)	40(38.1)	113(57.7)	46(46.9)	294(50.0)	
	계	57(100.0)	132(100.0)	105(100.0)	196(100.0)	98(100.0)	588(100.0)	
연령	20대	16(28.1)	48(36.4)	36(34.3)	41(21.0)	27(27.6)	168(28.6)	31.343*
	30대	14(24.6)	52(39.4)	31(29.5)	73(37.4)	36(36.7)	206(35.1)	
	40대	20(35.1)	18(13.6)	26(24.8)	46(23.6)	26(26.5)	136(23.2)	
	50대 이상	7(12.3)	14(10.6)	12(11.4)	35(17.9)	9(9.2)	77(13.1)	
	계	57(100.0)	132(100.0)	105(100.0)	195(100.0)	98(100.0)	587(100.0)	
학력	중졸 이하	8(14.0)	2(1.5)	6(5.7)	12(6.4)	3(3.1)	31(5.4)	16.083*
	고졸	8(14.0)	21(15.9)	16(15.2)	36(19.3)	21(21.4)	102(17.6)	
	초대 이상	41(71.9)	109(82.6)	83(79.0)	139(74.3)	74(75.5)	446(77.0)	
	계	57(100.0)	132(100.0)	105(100.0)	187(100.0)	98(100.0)	579(100.0)	
직업	공무원	25(43.9)	60(45.8)	43(41.0)	95(48.5)	36(37.1)	259(44.2)	N.S.
	일반시민	32(56.1)	71(54.2)	62(59.0)	101(51.5)	61(62.9)	327(55.8)	
	계	57(100.0)	131(100.0)	105(100.0)	196(100.0)	97(100.0)	586(100.0)	
월소득	100 이하	10(17.5)	16(12.4)	15(14.6)	25(12.8)	12(12.2)	78(13.4)	N.S.
	101-200	15(26.3)	36(27.9)	30(29.1)	55(28.1)	26(26.5)	162(27.8)	
	201-300	13(22.8)	24(18.6)	23(22.3)	47(24.0)	24(24.5)	131(22.5)	
	301-400	9(15.8)	29(22.5)	18(17.5)	31(15.8)	17(17.3)	104(17.8)	
	401 이상	10(17.5)	24(18.6)	17(16.5)	38(19.4)	19(19.4)	108(18.5)	
	계	57(100.0)	129(100.0)	103(100.0)	196(100.0)	98(100.0)	583(100.0)	
가족 구성	혼자	10(17.5)	7(5.4)	9(8.7)	20(10.3)	6(6.1)	52(8.9)	N.S.
	부부	6(10.5)	16(12.3)	13(12.5)	24(12.3)	13(13.3)	72(12.3)	
	2세대	28(49.1)	83(63.8)	64(61.5)	131(67.2)	58(59.2)	364(62.3)	
	3세대	5(8.8)	15(11.5)	12(11.5)	12(6.2)	11(11.2)	55(9.4)	
	기타	8(14.0)	9(6.9)	6(5.8)	8(4.1)	10(10.2)	41(7.0)	
	계	57(100.0)	130(100.0)	104(100.0)	195(100.0)	98(100.0)	584(100.0)	
소유	자가	29(50.9)	92(70.8)	69(65.7)	115(63.2)	63(64.3)	368(64.3)	N.S.
	차가	28(49.1)	38(29.2)	36(34.3)	67(36.8)	35(35.7)	204(35.7)	
	계	57(100.0)	130(100.0)	105(100.0)	182(100.0)	98(100.0)	572(100.0)	
주택 유형	아파트	23(41.1)	99(75.6)	70(66.7)	127(65.8)	77(79.4)	396(68.0)	35.841***
	단독다가구	24(42.9)	26(19.8)	30(28.6)	48(24.9)	17(17.5)	145(24.9)	
	다세대연립	9(16.1)	6(4.6)	5(4.8)	18(9.3)	3(3.1)	41(7.0)	
	계	56(100.0)	131(100.0)	105(100.0)	193(100.0)	97(100.0)	582(100.0)	

*p<.05, ***p<.001 N.S. : Not Significant

및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49.1%)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구별 조사대상자의 주택유형의 경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동구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유형(58.9%)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주의식 및 주거환경만족도

(1) 정주의식

구별 정주의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구별 응답자들이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5개구 모두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구는 그 다음으로 2년 미만과 2년~5년 미만이라는 경우가 각각 26.8%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표 2> 조사대상자의 정주 특성

빈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거주 기간	2년 미만	15(26.8)	21(15.9)	13(12.4)	45(23.2)	23(23.5)	117(20.0)
	2~5년 미만	15(26.8)	23(17.4)	25(23.8)	51(26.3)	27(27.6)	141(24.1)
	5~10년 미만	9(16.1)	36(27.3)	21(20.0)	28(14.4)	20(20.4)	114(19.5)
	10년 이상	17(30.4)	52(39.4)	46(43.8)	70(36.1)	28(28.6)	213(36.4)
	계	56(100.0)	132(100.0)	105(100.0)	194(100.0)	98(100.0)	585(100.0)
이사 의향	있다	24(42.1)	41(30.8)	36(34.3)	78(41.5)	43(43.4)	222(38.1)
	없다	20(35.1)	66(49.6)	51(48.6)	75(39.9)	32(32.3)	244(41.9)
	모르겠다	13(22.8)	26(19.5)	18(17.1)	35(18.6)	24(24.2)	116(19.9)
	계	57(100.0)	133(100.0)	105(100.0)	188(100.0)	99(100.0)	582(100.0)

*p<.05 N.S. : Not Significant

<표 3> 구별 주거환경만족도

평균(표준편차)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F 값	
공공시설(N=581)	3.71(.99)	3.72(.70)	3.50(.86)	3.46(.95)	3.47(1.00)	3.55(.90)	N.S.	
보육시설(N=565)	3.38(.97)	3.34(.64)	3.24(.83)	3.20(.83)	3.23(.99)	3.26(.84)	N.S.	
교육시설(N=569)	3.21(1.08)	3.40(.73)	3.48(.94)	3.33(.88)	3.23(1.08)	3.34(.92)	N.S.	
복지시설(N=566)	3.15(1.14)	3.06(.57)	3.28(.95)	3.06(.745)	3.02(1.05)	3.10(.86)	N.S.	
주거 환경 만족도	체육시설(N=569)	3.06(1.08)	3.37(1.00)	3.01(.97)	2.92(.99)	3.04(1.12)	3.07(1.03)	3.849**
의료시설(N=578)	3.19(1.13)	3.45(.84)	3.21(.91)	3.19(.89)	3.11(1.08)	3.24(.95)	N.S.	
여가문화(N=563)	3.06(1.20)	3.39(.97)	2.96(1.07)	3.07(.99)	2.88(1.12)	3.09(1.06)	3.965**	
상업시설(N=559)	3.07(1.08)	3.56(.90)	3.03(1.02)	3.17(.96)	3.12(1.08)	3.22(1.01)	5.308***	
녹지(N=574)	3.12(1.26)	3.61(.98)	3.11(1.05)	3.23(1.06)	3.33(1.10)	3.30(1.08)	4.189**	
모임공간(N=562)	2.88(1.08)	3.10(.69)	2.90(.93)	2.80(.87)	2.97(1.06)	2.92(.91)	N.S.	

p<.01, *p<.001

(28.6%)와 2년~5년 미만(27.6%)이라는 응답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 외에 신주거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5개구 중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남구(11.3년)였으며, 그 다음은 서구(8.8년), 광산구(7.9년), 북구(7.8년), 동구(6.5년)의 순이었다. 동구 응답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다른 4개구에 비해 짧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이동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거불안정에 따른 정주의식 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별 이사의향을 파악한 결과, 동구(42.1%)와 북구(41.5%), 광산구(43.4%)는 이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거주기간이 다른 구에 비해 길었던 서구(49.6%)와 남구

(48.6%)는 이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이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5개구 모두 '더 넓고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생활수준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구는 '생활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25.0%), 동구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조사대상자들은 주거비 부담이나 주택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기존의 생활여건이나 주변 생활수준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사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 병상수, 문화기반시설수 등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한 것은 생활여건 전반에 대한

<표 4> 지역 주민의 전반적 시민의식

평균(표준편차)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F 값
시민의식(N=582)	3.14(.69)	3.33(.64)	3.15(.84)	2.99(.75)	3.14(.80)	3.14(.76)	4.014**

**p<.01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구별로 이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5개구 모두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과 '근무지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지역 주민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2) 주거환경만족도

구별 주거환경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생활편의여건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5개구 모두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민모임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구별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시설은 체육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설, 녹지였으며, 이들 4개 시설 모두 서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서구: 체육시설 3.37, 여가문화시설 3.39, 상업시설 3.56, 녹지 3.61). 서구의 경우 이사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내 생활여건이 비교적 만족스럽기 때문에 정주의식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서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사의향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에 응답한 남구 거주자들의 연령이 서구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년 이상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 역시 43.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 살아온 익숙한 동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녹지공간 만족도는 동구와(3.12점) 남구(3.1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녹지공간 비율 면에서 북구는 전체 토지의 93.7%, 동구는 81%, 남구는 80%가 녹지지역인 반면에, 서구는 6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남구, 북구보다 서구의 녹지공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곧 단순히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녹지공간에의 접근성이나 쾌적성, 심미성과 같은 질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임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여가문화시설 만족도는 광산구(2.88점)가 가장 낮은 반면, 서구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기반시설수(인구십만명당)는 동구가 6.95개로 가장 많은 반면, 서구는 1.63개, 광산구는 1.58개로 낮게 나타났다. 만족

도 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수가 비슷하게 낮은 서구는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서구와 비슷한 시설수를 보인 광산구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양적인 시설 확보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별로 향후에는 각 지역별 인구 및 가구특성 등에 부합되는 생활여건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

1) 시민의식

현재 거주하는 지역내 주민들의 전반적인 시민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매우 낮다 1점~매우 높다 5점)로 질문한 결과 평균 3.14점으로 보통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개구 중에서 서구의 시민의식 평균값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구는 2.9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구의 경우 20대 응답자비율(36.4%)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각 지역 주민의 연령대별 구성에 따라서도 그에 적합한 주민참여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주체

현재 거주하는 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주체를 질문한 결과, 5개구 모두 '개인과 가정'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5개 구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개인과 가정의 노력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조).

3) 주민공동공간의 유무에 대한 인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현재 거주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주민공동공간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광산구 주민의 41.2%가 주민공동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4개구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곧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역내 공동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하는

<표 5>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주체

빈도(%)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개인, 가정	27(49.1)	74(56.5)	48(46.2)	106(55.8)	53(57.0)	308(53.8)		
노력 주체	사회.시민단체	9(16.4)	14(10.7)	25(24.0)	34(17.9)	15(16.1)	97(16.9)	N.S.
	정부.지자체	19(34.5)	43(32.8)	31(29.8)	50(26.3)	25(26.9)	168(29.3)	
계	55(100.0)	131(100.0)	104(100.0)	190(100.0)	93(100.0)	573(100.0)		
공동 공간	있다	13(22.8)	40(30.5)	26(25.0)	54(28.3)	40(41.2)	173(29.8)	N.S.
	없다	17(29.8)	23(17.6)	31(29.8)	51(26.7)	21(21.6)	143(24.7)	
	모른다	27(47.4)	68(51.9)	47(45.2)	86(45.0)	36(37.1)	264(45.5)	
계	57(100.0)	131(100.0)	104(100.0)	191(100.0)	97(100.0)	580(100.0)		

N.S. : Not Significant

<표 6> 주민공동공간의 유무에 대한 인지

빈도(%)

변 수	거주지역					전체	χ^2 값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있다	13(22.8)	40(30.5)	26(25.0)	52(26.8)	40(41.2)	171(29.3)	15.633*	
공통 공간	없다	17(29.8)	23(17.6)	31(29.8)	57(29.4)	21(21.6)		140(25.6)
모름	27(47.4)	68(51.9)	47(45.2)	85(43.8)	36(37.1)	263(45.1)		
전체	57(100.0)	131(100.0)	104(100.0)	194(100.0)	97(100.0)	583(100.0)		

*p<.05

<표 7> 주민공유공간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만족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F 값
주민공유공간만족도 (N=586)	3.38(.86)	3.29(.60)	3.32(.69)	3.33(.70)	3.48(.60)	3.36(.66)	N.S.

N.S. : Not Significant

것이다. 결국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주민공동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주민이 지역의 현안과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교육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안, 지역리더의 육성 등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4) 주민공동공간에 대한 만족도

지역 내 주민모임을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3.36점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5개구 중에서는 서구가 3.48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표 7> 참조). 한편 주민공동공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1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의 열악함, 그리고 위치가 멀기 때문이라

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민공동공간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0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값이 .8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분석 결과, 10개 문항 중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는 우리 동네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문항은 평균 2.40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8> 참조).

<표 8> 동네 관심도

평균(표준편차)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F 값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N=576)	3.45 (1.02)	3.87 (.83)	3.57 (.91)	3.53 (.96)	3.51 (1.00)	3.60 (.94)	3.432**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N=577)	2.68 (1.16)	2.24 (1.03)	2.49 (1.07)	2.35 (1.11)	2.43 (1.27)	2.40 (1.12)	N.S.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싶다.(N=573)	3.13 (.96)	2.77 (.82)	2.82 (.90)	2.77 (.92)	2.91 (.89)	2.84 (.90)	N.S.	
나는 우리 동네의 중요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N=575)	2.98 (.96)	2.69 (.95)	2.76 (1.02)	2.81 (1.02)	2.86 (.94)	2.80 (.98)	N.S.	
동네 관심도	나는 우리 동네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N=574)	2.98 (.98)	2.59 (.91)	2.73 (.91)	2.72 (1.00)	2.72 (1.01)	2.72 (.97)	N.S.
	나는 우리 지역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N=571)	2.80 (1.06)	2.41 (.88)	2.49 (1.01)	2.56 (1.10)	2.57 (1.03)	2.54 (1.03)	N.S.
우리 마을은 깨끗한 편이다.(N=568)	3.27 (1.07)	3.21 (.83)	3.16 (.97)	3.15 (.92)	3.26 (.99)	3.19 (.93)	N.S.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은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N=568)	3.18 (1.05)	3.18 (.82)	3.09 (.88)	3.00 (.98)	3.16 (.97)	3.10 (.93)	N.S.	
우리 지역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자원(유적지, 수려한 자연 환경 등)을 가지고 있다.(N=561)	2.88 (1.27)	2.76 (.97)	2.49 (1.05)	2.69 (1.04)	2.73 (.93)	2.70 (1.04)	N.S.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회관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N=574)	2.95 (1.09)	2.91 (.90)	2.52 (1.08)	2.61 (1.00)	2.75 (1.08)	2.72 (1.02)	3.404**	

**p<.01 N.S. : Not Significant

5개 구 중 현재 거주하는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점수(3.87점)는 서구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는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동네 주민들이 주민회관 등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문항의 점수(2.95점)가 다른 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구는 다른 4개 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이며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내 주민공동체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른 주민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될 소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광산구의 경우 앞서 주민공동공간에 대한 인지여부는 높게 나타난 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의 주민공동공간이 보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완과 함께 주민공동공간 이용 방식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주민자치활동

1)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

동(반사회, 부녀회 활동 등)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44.7%의 응답자들이 잘 모른다고 하였으며, 약간 알고 있다(29.0%), 관심없다(12.2%)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를 구별로 비교하면 5점 만점(전혀 모른다 1점~매우 잘 안다 5점)중 동구가 2.62점으로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하여 가장 인지도가 높았으며 서구가 2.32점으로 가장 인지도점수가 낮았다.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2.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앞서 나타난 낮은 인지도점수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5점 만점(전혀 활발하지 않다 1점~매우 활발하다 5점) 중 동구가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북구(2.60점)가 가장 낮았다.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구별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중 동구가 3.18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북구가 3.0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민자치활동의 필요도를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매우 필요하다 5점)로 파악한 결과 동구가 3.79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반면 남구는 3.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표 9> 참조).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인지, 활성화정도, 만족도에 있어 구별 차이는 없었으나, 동구의 경우 그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주민회관 등의 공동체시설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표 9>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의견

평균(표준편차)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F 값
주민자치활동 인지도	2.62(.82)	2.32(.73)	2.35(.67)	2.37(.74)	2.49(.85)	2.40(.75)	N.S.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2.82(.61)	2.79(.53)	2.78(.54)	2.60(.75)	2.77(.64)	2.73(.64)	N.S.
주민자치활동 만족도	3.18(.90)	3.16(.49)	3.04(.60)	3.00(.69)	3.15(.71)	3.09(.66)	N.S.
주민자치활동 필요도	3.79(.77)	3.50(.76)	3.39(.77)	3.41(.81)	3.67(.77)	3.51(.79)	4.205**

**p<.01 N.S. : Not Significant

<표 10> 주민자치활동이 필요한 이유

빈도(%)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 ² 값
주민들간에 유대가 좋아지기 때문	10(25.0)	13(20.0)	9(19.6)	14(16.3)	11(18.0)	57(19.1)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때문	7(17.5)	6(9.2)	4(8.7)	10(11.6)	7(11.5)	34(11.4)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	10(25.0)	16(24.6)	11(23.9)	29(33.7)	17(27.9)	83(27.9)	N.S.
주인의식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	13(32.5)	30(46.2)	22(47.8)	33(38.4)	26(42.6)	124(41.6)	
계	40(100.0)	65(100.0)	46(100.0)	86(100.0)	61(100.0)	298(100.0)	

N.S. : Not Significant

<표 11> 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와 참여정도

빈도(%)

구 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 ² 값
참여 안함	35(62.5)	108(81.2)	82(78.1)	132(73.3)	55(56.1)	412(72.0)	
필요할 때만 참여	9(16.1)	17(12.8)	14(13.3)	30(16.7)	25(25.5)	95(16.6)	
년 1-2회	-	2(1.5)	1(1.0)	2(1.1)	4(4.1)	9(1.6)	
월 1-2회	5(8.9)	4(3.0)	7(6.7)	10(5.6)	11(11.2)	37(6.5)	N.S.
주 1-2회	6(10.7)	2(1.5)	-	5(2.8)	3(3.1)	16(2.8)	
거의 매일	1(1.8)	-	1(1.0)	1(0.6)	-	3(0.5)	
계	56(100.0)	133(100.0)	105(100.0)	180(100.0)	98(100.0)	572(100.0)	

N.S. : Not Significant

경이 다소 열악하며 노후화되고 저소득 인구나 고령자비율이 높은 동구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주민자치활동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민자치활동의 필요 이유

주민자치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4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27.9%)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으나(<표 10> 참조), 이러한 구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응답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와 참여정도

현재 주민자치활동 참여여부와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 5개 구 모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구(81.2%)와 남구(78.1%)의 경우 참여 안한다는 응답율이 다른 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는 주 1~2회 정도 참여한다(10.7%)는 응답이, 광산구의 경우에는 월 1~2회 정도 참여한다(11.2%)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주민자치활동의 필요성과 현재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함께 연결시켜 보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그 필요성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주민자치활동 참여 이유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동네발전을 위해	13(65.0)	12(46.2)	14(60.9)	33(62.3)	20(47.6)	92(56.1)	N.S.
지역주민으로서 책임감때문	7(35.0)	10(38.5)	6(26.1)	17(32.1)	15(35.7)	55(33.5)	
벌금부과, 이웃 눈초리때문	0(0.0)	4(15.4)	2(8.7)	0(0.0)	2(4.8)	8(4.9)	
활동비 등 경제적인 혜택 때문	0(0.0)	0(0.0)	1(4.3)	0(0.0)	3(7.1)	4(2.4)	
집값이 상승되기 때문 (동네이미지향상)	0(0.0)	0(0.0)	0(0.0)	1(1.9)	0(0.0)	1(0.6)	
기타	0(0.0)	0(0.0)	0(0.0)	2(3.8)	2(4.8)	4(2.4)	
전체	20(100.0)	26(100.0)	23(100.0)	53(100.0)	42(100.0)	164(100.0)	

N.S. : Not Significant

<표 13> 주민자치활동 비참여 이유

변 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시간이 없기 때문	12(37.5)	40(37.4)	28(35.9)	55(41.4)	21(36.8)	156(38.4)	N.S.
관심이 없기 때문	9(28.1)	31(29.0)	27(34.6)	33(24.8)	11(19.3)	111(27.3)	
참여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	4(12.5)	4(3.7)	4(5.1)	4(3.0)	1(1.8)	17(4.2)	
동네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	2(6.3)	6(5.6)	8(10.3)	14(10.5)	12(21.1)	42(10.3)	
주민들 간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	0(0.0)	0(0.0)	0(0.0)	2(1.5)	2(3.5)	4(1.0)	
참여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	5(15.6)	17(15.9)	8(10.3)	21(15.8)	6(10.5)	57(14.0)	
기타	0(0.0)	8(7.5)	3(3.8)	4(3.0)	4(7.0)	19(4.7)	
전체	32(100.0)	106(100.0)	78(100.0)	133(100.0)	57(100.0)	406(100.0)	

N.S. : Not Significant

4) 주민자치활동 참여/비참여 이유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5개 구 모두 동네발전을 위해서(5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책임감 때문(33.5%)이라고 답하였다 (<표 12> 참조). 즉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5개 구 모두 시간이 없기 때문(3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심이 없기 때문(27.3%)이었다. 그밖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잘 몰라서(14.0%)라는 응답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주민자치활동 참여의사

조사대상자들이 향후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개 구 모두에서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겠다(17.6%)거나 잘 모르겠다(20.6%)는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앞으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유인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6) 지역에 필요한 주민자치활동

현재 거주지역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민자치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적으로 마을의 이미지향상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2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장가꾸기, 꽃길가꾸기, 쓰레기분리수거 등 환경미화(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높은 응답빈도를 보인 내용을 구별로 분석해 보면, 동구의 경우에는 마을 축제 등 지역주민들 간의 친목도모 활동(17.9%)을 필요한 내용으로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서구는 농산물 직거래 등 주민의 실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적인 빈도가 높았으며(13.7%), 남구는 지역주민들 간의 친목도모(13.4%)와 함께 지역 맞춤형

<표 14> 향후 주민자치활동 참여의사

빈도(%)

구 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적극 참여	4(7.0)	4(3.0)	1(1.0)	9(5.1)	5(5.1)	23(4.0)	N.S.
필요시 참여	34(59.6)	67(50.4)	65(63.1)	103(58.5)	59(59.6)	328(57.7)	
참여 안함	12(21.1)	30(22.6)	19(18.4)	25(14.2)	14(14.1)	100(17.6)	
모르겠음	7(12.3)	32(24.1)	18(17.5)	39(22.2)	21(21.2)	117(20.6)	
계	57(100.0)	133(100.0)	103(100.0)	176(100.0)	99(100.0)	568(100.0)	

N.S. : Not Significant

<표 15> 필요한 주민자치활동

빈도(%)

구 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마을 축제 등 지역주민들간의 친목도모	10(17.9)	15(11.5)	13(13.4)	19(10.7)	10(10.2)	67(12.0)	N.S.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8(14.3)	16(12.2)	13(13.4)	14(7.9)	12(12.2)	63(11.3)	
담장가꾸기, 꽃길가꾸기, 쓰레기분리수거 등 환경 미화	12(21.4)	33(25.2)	20(20.6)	49(27.5)	27(27.6)	141(25.2)	
농산물 직거래 등 주민 실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	5(8.9)	18(13.7)	12(12.4)	31(17.4)	13(13.3)	79(14.1)	
마을의 이미지향상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방안 제시	14(25.0)	33(25.2)	35(36.1)	41(23.0)	23(23.5)	146(26.1)	
방과후 아동 지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독거노인돌보기 등 불우한 이웃돌보기	7(12.5)	16(12.2)	4(4.1)	24(13.5)	13(13.3)	64(11.4)	
계	56(100.0)	131(100.0)	97(100.0)	178(100.0)	98(100.0)	560(100.0)	

N.S. : Not Significant

<표 16>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빈도(%)

구 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체	χ^2 값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	33(60.0)	76(59.8)	51(50.5)	95(53.7)	45(45.5)	300(53.7)	27.459*
일선공무원의 인식과 자세 개선	3(5.5)	2(1.6)	7(6.9)	5(2.8)	4(4.0)	21(3.8)	
주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1(1.8)	5(3.9)	7(6.9)	10(5.6)	13(13.1)	36(6.4)	
주민참여제도의 확충과 내용적 개선	<u>9(16.4)</u>	<u>29(22.8)</u>	17(16.8)	<u>42(23.7)</u>	<u>29(29.3)</u>	126(22.5)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u>9(16.4)</u>	15(11.8)	<u>19(18.8)</u>	25(14.1)	8(8.1)	76(13.6)	
계	55(100.0)	127(100.0)	101(100.0)	177(100.0)	99(100.0)	559(100.0)	

*p<.05

형 주택정책 수립(13.4%)에 관한 의견제시를 동일한 비율로 높게 언급하였다. 한편 북구(10.7%)와 광산구(10.2%)는 주민 실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5개 구 모두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마을의 이미지 향상과 환경미화에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활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7)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필요조건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이라고 답하였으며(53.7%), 그 다음으로 주민참여제도의 확충과 내용적 개선(22.5%),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13.6%)는 순이었다. 5개구 모두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구(16.8%)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주민참여제도의 확충과 내용적 개선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의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 각 구별 주민구성상의 특성에 적합한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노력, 지역의 주택문제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각 구별로 생활여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생활편의시설 등의 양적 확보가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여건의 질적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광주광역시 각 구별 정주의식과 주거환경만족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주민참여의 의식부분이나 주민자치활동에 있어서는 구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광주광역시의 주민참여 의식이나 주민자치활동은 지역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이웃관계 개선 등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과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반 관련 제도나 지역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이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5개구 별로 조사된 지역의 현안과 주민자치활동 등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의식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구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자들의 정주의식도 5개구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화여가시설, 복지시설 등의 시설의 수는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느끼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서구는 주거환경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다른 4개구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사 의향도 5개구 중 가장 낮아 정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활동의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자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개 구 중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활동의 필요성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향후 지역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교육과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중

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사 의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민자치활동의 필요성은 5개 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구는 녹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80%를 넘고 있으나, 응답자들이 평가한 남구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개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민참여를 통한 녹지환경 개선 등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의 이미지 제고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북구 역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정주성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한 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도 북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다른 구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시설 투자 및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광산구의 사회인구학적 주민구성상의 특성 및 주거환경특성에 부합되는 다각적인 주민참여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지역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것이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나 업무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많은 지역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들간에 필요한 파트너쉽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다각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특성(물리적 환경특성, 비물리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 구성과 자원 발굴 및 문제점 분석, 비전과 계획안 설정,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운영하며 사후 평가까지 진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의 주체로서 잠재적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주민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잠재력있는 실력자와 리더 후보자를 탐색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광주광역시(2009). 광주사회통계.
 광주통계연보(1990~2007). 광주광역시
 국토해양부(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김구·우윤석·신재주·김남일(2007).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행정자치부.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행중·오정석(2008).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
 학회지**, 24(1), 37-45.
 류중석·송미령·이성은·이왕건·이재준(200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마상열(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전략 수립. 경남
 발전연구원.
 박은규·박근석·박명수(2006).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주택도시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5).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의 임
 파워먼트를 위한 주민조직화사업 평가보고서.
 서종균(2001). 공공임대주택 공동체운동의 현황과 과제 -임
 차인 참여에 대한 주체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7, 한국도시연구소, 47-74.
 소순열·유찬주(2004). 지역농업네트워크의 형성과 기능. **지역
 사회연구**, 12(1), 95-114.
 소순열(2007).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과 주민 역량강화.
 송미령·성주인(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수길·유문중·이은석(2007).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
 참여 현황 분석. 뉴거버넌스연구센터·행정자치부.
 이영아·변필성·류승한·최병남(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
 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이재준(2005).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토지와 기술**, 여름호, 51-66.
 이호·박연희·홍현미라(2001).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

방법론. 한국도시연구소.
 진영환·류승한·조관기·김진법·권영상·정윤희(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국토
 연구원.
 Creighton, J. L.(2005).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Jossey-Bass.
 주요시정통계(2009). 광주광역시청. 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동구청. www.donggu.kr
 광주광역시 서구청. seogu.gwangju.kr
 광주광역시 남구청. namgu.gwangju.kr
 광주광역시 북구청. bukgu.gwangju.kr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www.gwangsangu.go.kr

접수일 : 2011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9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5일